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Vol. 22, No. 1, 233-248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사관생도의 성격적 강점과 행복 및 생활적응과의 관계

김 광 은† 윤 유 경 권 석 만 하 승 수

공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이 연구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사관생도의 성격적 강점과 이러한 강점들이 주관적인 행복감과 생활적응에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는 사관생도 209명이 참여했으며 생도들의 반응은 2,030명의 대학생 자료와 비교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성격적 강점 척도와 행복 척도, 그리고 생도생활 적응검사이다. 연구 결과, 생도들은 성격적 강점 중 사랑, 감사, 친절성, 낙관성, 유머감각의 점수가 높았고, 자기조절, 신중성, 용서, 학구열, 영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사관생도가 대학생보다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시민정신, 리더십, 용감성이고 대학생의 순위가 사관생도보다 높은 것은 신중력과 감상력의 강점이었다. 생도들의 경우 대부분의 성격적 강점은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낙관성과 사랑의 강점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도생활적응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내무생활 및 애착은 낙관성이, 대인관계 및 심리와 학업요인은 사랑의 강점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적 강점의 보편성과 생도생활의 특수성 및 실제 적용 면에서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성격적 강점. 행복, 생활적응, 생도, 긍정심리학

† 교신저자 : 김광은, 공군사관학교, (363-849)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3
Tel : 043-290-5043, E-mail : 9pine@hanmail.net

www.kci.go.kr

긍정심리학은 심리학의 정체성을 인간의 약점과 장애뿐 아니라 인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한 학문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1998년에 공식적으로 출발하였다(권석만, 2008; Peterson & Seligman, 2004, Seligman, 2004), 이후 긍정심리학의 연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그것은 긍정 상태, 긍정 특질, 그리고 긍정 기관에 관한 것이다.

긍정기관의 측면에서 미국 군대의 경우 부대원들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 임상 장면, 그리고 군 가족을 위한 복지와 안녕 차원에서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Matthews, Eid, Kelly, Bailey, & Peterson, 2006; Matthews, 2008). 특히 Matthews(2008)는 군대는 상대적으로 젊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강점과 덕성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의 기본 전제가 그 어느 조직보다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9월 대한군상담학회에서 '군대와 긍정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긍정심리학의 동향 및 군대조직에서의 활용방안(권석만, 2009a), 성격적 강점 및 덕성 연구가 군대에 주는 시사(김광은, 2009), 그리고 군대 장면에 긍정상담 및 치료적 접근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고영건, 2009)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행복과 안녕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조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을 군대 조직에 적용해보는 데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 이를 위해 긍정심리학의 주요 주제 중 긍정 특질과 관련된 성격적 강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분야의 연구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와 예방 뿐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강점과 특성을 어떻게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격적 강점과 덕성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심리적 결함과 장애에 대해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이라는 방대한 분류체계가 구성되어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인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Peterson & Seligman, 2004).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긍정심리학의 주요 연구자인 Peterson과 Seligman은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덕목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자료, 그리고 청소년 발달의 주요 이론을 검토하여 비교적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6개 영역의 덕성과 24개의 강점을 선정하였다(표 1). 여기서 덕성(virtues)이란 도덕 철학자나 종교 사상가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핵심적인 특징이며, 성격적 강점(character strengths)은 이러한 덕성을 과정이나 기제 면에서 설명하는 심리적 요소이다.

현재 성격적 강점과 덕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Peterson 등(2004)이 이러한 강점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VIA 강점척도(VIA-IS: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를 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척도는 24개의 강점당 10문항씩 할당되어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용 검사로 지필검사와 인터넷(www.viastrengths.org)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아직 한국판으

www.kci.go.kr

표 1. 6개의 핵심 덕목과 24개 성격강점 분류

1. **지혜와 지식(wisdom and knowledge)**: 지식의 습득 및 활용과 관련된 인지적 강점
   - 창의성(creativity): 참신한 사고와 생산적인 행동방식
   - 호기심(curiosity):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과 현상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능력
   - 개방성(open-mindedness): 사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검토하는 능력
   - 학구열(love of learning): 새로운 기술, 주제, 지식을 배우고 숙달하려는 동기와 능력
   - 지혜(wisdom):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현명한 조언을 제공해 주는 능력
2. **자애(humanity)**: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친밀해지는 것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강점
   - 사랑(love):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능력
   - 친절성(kindness): 다른 사람을 위해 호의를 보이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와 실천력
   -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기와 감정을 잘 파악하는 능력
3. **용기(courage)**: 내적, 외적 난관에 직면해도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정서적 강점
   - 용감성(bravery): 위협, 도전, 난관, 고통으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는 능력
   - 끈기(persistence):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여 완성하는 능력
   - 진실성(authenticity): 진실을 말하고 자신을 진실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능력
   - 활력(vitality):활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삶에 임하는 태도
4. **절제(temperance)**: 지나침으로부터 보호해 주어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용적 강점
   - 용서(forgiveness):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능력
   - 겸손(modesty):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 과장된 허세를 부리지 않는 태도
   - 신중성(prudence): 선택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능력
   -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신의 감정, 욕구, 행동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능력
5. **정의(justice)**: 건강한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강점
   - 시민정신(citizenship): 사회나 조직에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부응하려는 태도
   - 공정성(fairness)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태도
   - 리더십(leadership): 집단 활동을 조직화하고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능력
6. **초월(transcendence)**: 의미를 부여하고 커다란 세계인 우주와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강점
   - 감상력(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수월성, 뛰어난 수행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
   - 감사(gratitude): 좋은 일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
   - 낙관성(optimism): 최선을 예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 유머감각(humor): 웃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능력
   - 영성(spiritually):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신념

로 번안되어 있지 않지만 권석만(2009b)이 성격적 강점의 기본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격적 강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척도를 제작하였다.

www.kci.go.kr

VIA 강점척도를 이용하여 성격적 강점을 다룬 실증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성격적 강점의 분포를 다양한 집단과 연령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들(Linley et al., 2007; Matthews et al., 2006; Park, Peterson & Seligman, 2006; Shimai, Otake, Park, Peterson, & Seligman, 2006)이고, 다른 하나는 성격적 강점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주로 상관 분석을 통해 탐색하는 연구들(Peterson, Ruch, Beermann, Park & Seligman, 2007; Shimai et al., 2006)이다. 이러한 수준에서 성격적 강점과 덕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정교한 틀을 갖추었다기보다는 아직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성격적 강점이 얼마나 보편적인 속성인가를 검증한 연구로 Park 등(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검사에 응답한 54개국의 성인 및 미국 내 50개 주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응한 강점은 친절성, 공정성, 진실성, 감사, 개방성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게 반응한 것은 신중성, 겸손, 자기조절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영성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국가 간의 상관은 .80으로 매우 높았으며, 미국 내 50개 주에 거주하는 성인들의 반응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성격적 강점은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되며, 각 개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강점의 빈도 면에서도 국가와 지역 간에 상당히 일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성격적 강점은 연령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Linley 등(2007)의 연구에서 미약하지만 연령과 상관있는 강점은 호기심, 학구열, 공정성, 용서, 자기 조절이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Park 등(2006)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성인과 청소년들은 강점 순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높은 일치도를 보이지만 미국의 성인과 다른 나라의 성인이 나타내는 순서의 일치도보다는 현저하게 낮았다. 즉 미국의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낙관성, 시민정신, 활력 등을 더 높게 평정한 반면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진실성, 개방성, 감상력, 리더십 등을 더 높게 평정했다. 미국과 일본의 18세에서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Shimai 등의 연구(Shimai, et al., 2006)에서도 이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사랑, 낙관성, 친절의 강점을 높게 평가한 반면에 신중성, 자기조절, 겸손과 같은 '절제'의 덕성에 포함된 강점은 순위가 낮았다.

성격적 강점이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Matthews 등(2006)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육사 생도와 노르웨이 해사 생도, 그리고 이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미국 청년들의 성격적 강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나라의 사관생도는 일반 청년에 비해 진실성, 낙관성, 용감성, 끈기, 시민정신 등의 강점이 높은 반면 감상력은 일반 집단에 비해 낮았다. 또한 미국 육사 생도는 일반 청년집단에 비해 성격적 강점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생도들이 일반 청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성격적 강점은 군대 조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상관이 있고, 감상력에서의 낮은 점수는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적고 획일적인 군대 조직에서 길러지기는 어렵다는 점과 관련 있다.

성격적 강점과 같은 긍정적 특질과 관련지

www.kci.go.kr

어 가장 많이 다루어진 심리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다. Park 등(2004)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낙관성, 활력, 감사, 사랑, 호기심과는 확실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감상력, 창의성, 개방성, 학구열과 같은 강점과는 약하게 관련이 있었다. Shimai 등(2006)의 연구에서도 활력, 낙관성, 호기심, 감사와 같은 강점이 행복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미국인과 스위스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Peterson, et al., 2007)에서는 두 집단 모두 사랑, 낙관성, 호기심, 활력 등의 강점과 삶의 만족도가 높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성격 변인으로 '낙관성'을 얘기한 학자들의 주장(Compton, 2005; Peterson, 2006; Seligman, 1990)과 일맥상통하며, 사랑과 친밀감이 수반되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가 행복과 상관있다는 연구들(구재선, 김의철, 2006; Diener & Seligman, 2002)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강점이 행복과 더 관련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좀 더 다양한 맥락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강점은 모두 행복과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행복을 경험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알려진 경로면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생도 집단에서는 24개의 성격적 강점이 어떠한 순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생도들은 발달적으로는 청년기에 속해 있으며 대학 수준의 학위과정을 이수한다. 또한 이들은 군대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 함양을 위해 군대 조직과 유사한 내무생활을 4년 동안 체험하며 체력단련과 군사훈련 등을 병행하여 받는다. 이렇게 동시대의 청년들과 비슷한 발달단계에 있으면서도 독특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도들의 성격적 강점을 살펴보는 것은 성격적 강점의 보편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성격적 강점이 특수한 교육 목적이나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도들의 성격적 강점이 행복과 생활적응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성격적 강점과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강점들이 생도들이 지각하는 행복과 생활적응과 관련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성격적 강점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건강한 자원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상담적 접근이나 인성교육과 같은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방 법

참여자

이 연구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 20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학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되었다. 전체 생도 중 남생도는 193명이였고 여생도는 16명이였다. 참고로 공군사관학교의 여생도 비율은 전생도의 10%이며 생도들의 연령분포는 18세에서 24세로 평균나이는 20.21(표준편차 1.47)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도들의 성격적 강점을 비교해 보기 위해 일반 대학생들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이 자료는 권석만(2009b)이 표준화된

www.kci.go.kr

대학생용 성격적 강점 척도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의 9개 대학교(서울대, 아주대, 한림대, 충남대, 대구대, 대구 가톨릭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에서 2,030명의 대학생으로부터 표집한 것이다. 이들 중 남학생은 899명(44%)이었고 여학생은 1,131명(56%)이었으며 연령분포는 17～37세였고 평균 연령은 21.02(표준편차 2.46)였다.

도구

성격적 강점 척도

이 검사는 권석만(2009b)이 성격적 강점과 덕성에 대한 VIA 분류체계(Peterson & Seligman, 2004)에 근거하여 한국 대학생의 성격적 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성격적 강점 검사는 VIA 분류체계에 따라 6개 핵심덕목의 24개의 하위 강점을 측정하기 위한 24개의 강점 척도와 더불어 피평가자의 반응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적 선희도를 포함하여 모두 2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는 각각 10문항으로 총 문항은 250개이며 피평가자는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개인적 성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Likert 4점 척도(0=전혀 아니다, 1=약간 그렇다, 2=상당히 그렇다, 3=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권석만(2009b)에 따르면, 성격적 강점척도는 24개 강점에 대해서 각각의 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15～20개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여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한 후 개별 문항의 심리측정적 특성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항들로 구성된 강점 척도를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하위 강점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6～.92였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5～.87이었다. 24개 강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기존 척도들과의 상관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의 범위가 .35～80이었다. 창의성, 끈기, 신중성, 감상력, 감사, 유머감각, 영성 척도는 .70이상의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진실성(r=.35)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은 모두 .4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행복 척도

이 검사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권석만(2009c)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피평가자는 각 문항의 내용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중간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권석만(2009c)에 따르면, 행복 척도는 개인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12개의 예비문항을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하여 각 문항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발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문항을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하여 요인구조,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행복척도는 1요인 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7이었고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51～.84의 범위에 있었다. 또한 행복척도는 자존감 척도(이훈진과 원호택, 1995; Rosenberg, 1965)와 r=.71의 상관을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 척도(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와는 r=.76의 상관을 나타냈다.

www.kci.go.kr

생도생활적응검사

이 검사는 대학생활적응검사에 생도생활을 접목시킨 김광은(1998)이 제작한 '생도생활적응검사'를 기초로 하여 김광은과 윤유경(2006)이 표준화한 것이다. 검사의 총 문항은 76개이며, 생도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경험에 대해 자신의 상태와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Likert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내무생활 및 애착', '대인관계 및 심리', '학업'의 세 요인과 검사 반응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타당성'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요인별로 .80～.91, 재검사신뢰도는 .72～.78로 나타났고, 대학생활부적응척도(김정기 등, 1998)와는 -.30～-.32의 상관을 나타냈다.

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12.0판(SPSS Inc., 200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생도와 대학생의 성격적 강점 분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강점별 평균을 산출한 후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순서를 매겼다. 양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지 않고 순위를 매긴 것은 두 집단의 표집의 크기 및 성별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 집단에 대한 동등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성격적 강점의 순위는 8개를 한 세트로 하여 상중하 수준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성격적 강점의 순위 차이는 생도집단을 기준으로 대학생집단의 순위를 뺀 것이다.

성격적 강점과 주관적인 행복감 및 생도생활적응과의 관계는 각 요인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어떠한 강점들이 행복감과 생도생활 적응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 과

사관생도의 성격적 강점

24개의 강점 중에서 생도들과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격적 강점의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각 강점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였다. 표 2는 사관생도와 대학생의 성격적 강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두 집단의 강점별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사관생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점은 사랑, 감사, 친절성, 낙관성, 유머 감각이고 하위에 위치한 강점은 자기조절, 신중성, 용서, 학구열, 영성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순서는 대학생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관생도와 대학생 모두 사랑, 낙관성, 친절의 강점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점 조사(Park et al, 2006)와 미국과 일본의 청년들의 반응(Shimai et a.l, 2006)에서도 관찰된 것이다.

생도와 대학생간에 세 순위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 강점은 시민정신, 리더십, 감상력, 용감성, 신중성이었다. 이중 시민정신, 리더십, 용감성의 강점은 생도들의 순위가 더 높고, 신중성, 감상력의 강점은 대학생의 순위가 더 높다. 미국 사관생도와 일반 청년을 비교한 연구(Matthews et al., 2006)에서도 생도들은 일반 청년들 보다 시민정신과 용감성은 높은 반

www.kci.go.kr

표 2. 사관생도와 대학생의 성격적 강점 순위

순위 구분	성격적 강점	생도(N=209)			대학생(N=2,030)			순위 차이
		순위	M	SD	순위	M	SD	
상	사랑	1	2.143	.48	1	2.132	.48	0
	감사	2	2.075	.55	4	1.908	.59	-2
	친절성	3	2.068	.49	2	2.030	.50	1
	낙관성	4	2.042	.49	3	1.979	.55	1
	유머감각	5	1.902	.54	6	1.824	.61	-1
	진실성	6	1.899	.51	5	1.83.5	.50	1
	시민정신	7	1.854	.43	10	1.708	.48	-3
	공정성	8	1.845	.44	7	1.746	.44	1
중	활력	9	1.809	.51	11	1.679	.55	-2
	시회지능	10	1.785	.56	9	1.723	.59	1
	개방성	11	1.783	.51	13	1.652	.56	-2
	겸손	12	1.763	.53	12	1.663	.55	0
	끈기	13	1.760	.52	17	1.594	.58	0
	호기심	14	1.714	.51	14	1.649	.56	0
	리더십	15	1.709	.53	20	1.507	.62	-5
	창의성	16	1.696	.56	15	1.635	.66	1
하	감상력	17	1.701	.59	8	1.724	.60	9
	용감성	18	1.694	.50	22	1.465	.53	-4
	지혜	19	1.689	.53	18	1.548	.56	1
	자기조절	20	1.679	.47	19	1.535	.54	1
	신중성	21	1.658	.46	16	1.610	.50	5
	용서	22	1.652	.51	21	1.497	.55	1
	학구열	23	1.413	.60	23	1.282	.60	0
	영성	24	1.077	.75	24	.964	.76	0

면 감상력은 낮은 경향을 보여 한 집단의 성격적 강점은 구성원의 특성이나 특정 집단의 문화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이렇게 성격적 강점의 분포 면에서 발달단계나 교육환경, 나라별로 공통적인 경향을 공유하면서도 선호하는 강점의 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격적 강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격

www.kci.go.kr

적 강점은 이러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성격적 강점과 행복과의 관계

24개의 성격적 강점과 행복감과의 상관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구열과 영성을 제외한 22개의 성격적 강점은 모두 행복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격적 강점들은 같은 덕목에 속해 있는 강점 간이나 같은 덕목에 속해 있지 않다하더라도 개념적인 측면에서 서로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24개의 강점 중 어떤 강점이 행복감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 보기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강점은 낙관성(β=4.332(.933), p <.001)과 사랑(β=3.599(.965), p <.001)이었다. 행복은 낙관성의 요인만으로는 34%가 설명되며(모델1), 여기에 사랑의 강점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38%로 증가한다(모델 2). 두 모델에서 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는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낙관성과 사랑이 행복을 설명하는 강점으로 나타난 것은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연구한 선행연구들(Compton, 2005; Peterson, 2006; Seligman, 1990)과 일치하는 것이다.

성격적 강점과 생활적응과의 관계

성격적 강점과 실제 생도생활적응과는 어떤

표 3. 성격적 강점과 행복의 상관관계

	성격적 강점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행복	.29**	.50**	.36**	.03	.32**	.56**	.45**	.46**	.46**	.37**	.47**	.55**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영성
	.31**	.24**	.22**	.30**	.48**	.28**	.41**	.27**	.47**	.58**	.37**	.04

** p<.01

표 4. 행복감에 대한 성격적 강점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모델	독립변인	β	Std..Error	R	R^2	F
행복	1	낙관성	.6.847	.665	.584	.341	105.85***
	2	낙관성	4.332	.933	.619	.383	63.22***
		사랑	3.599	.965			

*** p<.001

www.kci.go.kr

표 5. 성격적 강점과 생활적응 요인간의 상관관계

생활 적응	성격적 강점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사랑	친절성	사회 지능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내무 생활/애착	.25**	.44**	.22**	-.04	.22**	.52**	.40**	.40**	.38**	.31**	.35**	.51**
대인 관계/심리	.26**	.41**	.23**	-.17*	.25**	.64**	.45**	.61**	.46**	.30**	.42**	.50**
학업	.26**	.41**	.25**	.13	.30**	.51**	.43**	.39**	.32**	.40**	.31**	.50**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 조절	시민 정신	공정성	리더십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 감각	영성
내무 생활/애착	.24**	.17**	.12	.22**	.49**	.28**	.39**	.20**	.47**	.56**	.41**	-.08
대인 관계/심리	.18**	.14**	.16*	.21**	.43**	.20**	.57**	.12	.34**	.45**	.53**	-.07
학업	.18**	.15*	.22**	.33**	.42**	.26**	.39**	.21**	.38**	.46**	.32**	-.01

* p<.05, ** p<.01

관련이 있을까? 이 둘의 상관관계가 표 5에 제시되어 있고, 생활적응의 하위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성격적 강점과 생활적응의 세 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모든 모델에서 VIF는 10이하로 나타나 성격적 강점 간에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강점은 생도생활의 하위 적응 영역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도생활적응 요인 중 내무생활 및 애착을 설명해 주는 성격적 강점은 낙관성(β=12.841(2.026), p <.001), 학구열(β=-5.113(1.304), p <.001), 시민정신(β=10.017(2.538), p <.001), 겸손(β=-.3.931(1.677), p <.01)이다(모델 4). 내무생활 및 애착은 낙관성만으로는 31%를 설명하지만(모델 1) 학구열과 시민정신, 겸손의 요인이 추가적으로 투여될 때 이 요인들로 40%가 설명된다.

낙관성과 시민정신의 강점이 내무생활적응 및 학교에 대한 애착을 설명해 주는 것은 낙관적인 태도가 생도생활적응을 촉진한다는 연구(윤유경, 2001)와 개인의 개성이나 욕구 보다는 팀워크와 공익정신을 강조하는 생도생활의 특성상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학구열과 겸손의 강점이 낮을수록 이 영역의 설명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 이러한 반응의 원인을 추론할 수는 없지만 지적인 역량 못지않게 심신의 강인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군대 조직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을 기르기 위해 실시되는 체력단련과 군사훈련은 상대적으로 학구열이나 겸손의 강점이 생활적응에 미덕으로 인정되거나 선호되는 강점으로

www.kci.go.kr

표 6. 생도생활적응에 대한 성격적 강점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모델	독립변인	β	Std.Error	R	R^2	F
내무생활 및 애착	1	낙관성	15.241	1.599	.560	.313	90.83***
	2	낙관성	16.834	1.615	.596	.356	54.65***
		학구열	-4.848	1.345			
	3	낙관성	12.627	2.047	.623	.388	41.63***
		학구열	-5.190	1.318			
		시민정신	7.501	2.325			
	4	낙관성	12.841	2.026	.636	.405	33.31***
		학구열	-5.113	1.304			
		시민정신	10.017	2.538			
		겸손	-3.931	1.677			
대인관계 및 심리	1	사랑	11.307	.951	.644	.415	141.25***
	2	사랑	11.693	.912	.685	.470	87.70***
		학구열	-3.319	.735			
	3	사랑	7.421	1.249	.724	.524	72.33**
		학구열	-3.509	.699			
		사회지능	5.139	1.083			
	4	사랑	7.522	1.233	.734	.539	57.40***
		학구열	-3.214	.699			
		사회지능	5.269	1.069			
		영성	-1.425	.558			
	5	사랑	6.696	1.268	.743	.552	48.10***
		학구열	-3.768	.730			
		사회지능	4.308	1.133			
		영성	-1.440	.551			
		용감성	2.716	1.152			
	6	사랑	9.126	1.554	.753	.552	42.45***
		학구열	-3.464	.729			
		사회지능	4.870	1.136			
		영성	-1.328	.545			
		용감성	3.059	1.142			
		친절성	-3.836	1.459			
	7	사랑	8.738	1.554	.759	.577	37.54**
		학구열	-3.550	.724			
		사회지능	5.042	1.130			
		영성	-1.434	.543			
		용감성	2.439	1.174			
		친절성	-5.074	1.572			
		시민정신	2.868	1.420			
	8	사랑	8.666	1.537	.767	.588	34.21**
		학구열	-2.978	.759			
		사회지능	5.317	1.125			
		영성	-1.595	.542			
		용감성	3.418	1.239			
		친절성	-4.814	1.559			
		시민정신	3.386	1.423			
		개방성	-2.587	1.138			
학업	1	사랑	8.286	.987	.512	.262	70.510***
	2	사랑	5.020	1.383	.548	.300	42.414***
		활력	4.273	1.298			
	3	사랑	6.130	1.481	.560	.314	30.025***
		활력	5.336	1.395			
		유머감각	-2.524	1.266			

** $p<.01$ *** $p<.001$

www.kci.go.kr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생도들 간의 인간관계는 물론 훈육 장교 및 교수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특징과 관련된 대인관계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에는 여러 강점들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으로 보았을 때 사랑(β= 11.307(.951), p <.001)만으로는 41%를 설명하지만(모델 1), 학구열(β=-2.978(.759), p <.001), 사회지능(β=5.317(1.125), p <.001), 영성(β= -1.595(.542), p <.01), 용감성(β=3.418(1.239), p <.001), 친절성(β=-4.814(1.559), p <.001), 시민정신(β=3.386(1.423), p <.05), 개방성(β=-2.587 (1.138), p <.05)이 추가될 때 설명력이 58%까지 증가한다(모델 8).

여기에서도 사랑, 사회지능, 용감성, 시민정신 등의 강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적응을 잘 할 가능성은 성격적 강점의 개념이나 실제 생도생활의 특성상 수용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내무생활 적응과 마찬가지로 학구열, 영성, 친절성, 개방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적응과 관련 있다는 것은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 다만 생도 사이에도 학년에 따라 위계가 분명한 이들의 인간관계의 특성은 이러한 강점의 발현을 제한하거나 이러한 강점과는 반대되는 특성이 이들의 인간관계 및 심리적인 적응 면에서도 더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학업적응과 성격적 강점과의 관계를 보자. 학업적응은 학업에 대한 동기와 태도, 학업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설명해 주는 강점은 사랑(β=6.130(1.481), p <.001, 활력(β=5.336(1.395), p <.001. 유머감각(β=-2.524(1.266), p <.05)이고(모델 3) 이 요인들은 31%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적 강점의 정의에 따르면 학업적응은 지혜와 지식의 덕목의 강점들과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응에서도 인지적인 강점들보다는 정서와 동기적인 속성을 갖는 강점들이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은 앞서 설명한 생도들의 생활특성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학구열의 선호 순위가 낮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서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논 의

지금까지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사관생도들의 성격적 강점과 이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행복 및 실제 생도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사항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성격적 강점은 보편성을 띨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개인의 특성이나 교육환경에 따라 선호되는 강점이 다르게 발현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발달적 보편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생도와 대학생 모두 사랑, 친절성, 낙관성의 강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반응은 다른 나라 청년들에 대한 조사(Park et al., 2006; Shimai, et al., 2006)에서도 공통적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관생도와 대학생의 청년기에 속하는 집단의 성격적 강점 분포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대 및 성별에 따른 강점 분포를 조사한다면 이에 대한 좀 더 확증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격적 강점이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의

www.kci.go.kr

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생도와 대학생의 반응에서 부분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술적 수준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생도와 대학생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인 시민정신, 리더십, 감상력, 용감성의 강점들은 미국 사관생도와 일반 청년집단을 비교한 연구(Matthews et al., 2006)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자원의 특성과 군대 조직이나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성격적 강점이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 받을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선호되는 강점이 다르며 이러한 강점들은 의도적인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성격적 강점의 개념적 타당성 및 실제 적용면에서도 의미 있는 발견이 있었다. 먼저 대부분의 성격적 강점은 이론적 가정대로 주관적인 행복감 및 실제 생활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행복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낙관성과 사랑이 본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 이는 성격적 강점의 개념적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가려면 어떠한 강점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가에 대한 시사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행복을 증진 시키는 개인이나 집단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시 일차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몇 개의 성격적 강점은 이론적 가정과는 반대로 이러한 강점이 적을수록 생활적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학구열, 겸손, 친절, 개방성의 강점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학구열은 부적인 방향에서 내무생활이나 대인관계 적응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성 개념 면에서 상관이 높아야 할 학업 적응과는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학문적인 성취나 능력 배양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 일반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인 역량 못지않게 심신의 강인함을 중요시하는 생도생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인 학업성취와 무관하게 이 영역에서 자발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생도 이외에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실제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미덕이나 강점보다는 이러한 강점의 반대되는 측면이 더 적응을 촉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갖게 한다. 이러한 모든 가정들은 좀 더 다양한 대상과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생도 집단은 모집단 자체의 성별 구성이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어 이와 비슷한 구성의 비교 집단을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생도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기 위해 사용한 대학생 자료는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에서 표집된 것이기는 하나, 표집의 수나 성별 구성, 지적인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생도들과 동등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권석만(2009b)의 성격적 강점 척도는 Peterson 등(2004)이 개발한 성격적 강점 척도의 개념을

www.kci.go.kr

차용하기는 하였지만 이 척도를 그대로 번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구성 개념 면에서도 각각의 강점들은 서로 중첩되는 면 없이 각 강점 나름의 독특성을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교적 젊고 건강한 자원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을 이끌어갈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이들이 선호하거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격적 강점들을 밝혀 보고, 이러한 강점에 근거하여 좀 더 행복하고 적응적인 생도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권석만 (2009a). 긍정심리학의 동향 및 군대에서의 활용방안. 군대와 긍정심리학. 대한군상담학회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7-22.

권석만 (2009b). 서울대학교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성격적 강점검사의 개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연구보고서.

권석만 (2009c). 행복척도의 개발. 미발표 연구논문.

고영건 (2009). 군에서의 긍정심리상담 및 치료. 대한군상담학회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37-49

구재선, 김의철 (2006). 심리적 특징, 생활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김광은 (1998). 남녀 생도 생활적응과정 연구: 입교 후 1년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148-160.

김광은, 윤유경 (2006). 생도생활적응검사 표준화 연구. 상담학연구, 7(4), 955-967.

김광은 (2009). 성격적 강점 및 덕성 연구가 군대에 주는 시사. 대한군상담학회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23-36.

윤유경 (2001). 생도의 학년별 적응과정 연구. 공사논문집, 48, 133-163.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서은국, 성미선, 김진주 역. ≪긍정심리학 입문≫. 서울: 박학사, 2007).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1-84.,

Linley, A., Maltby, P., Wood, J., Joseph, A. M., Harrington, S., Peterson, S., Park, C., Seligman, M. E. (2007). Character strengths in the United Kingdom: The VIA Inventory of Strength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2),* 341-351.

Matthews, M. D. (2008). Toward a positive military psychology. *Military Psychology, 20,* 289-298.

Matthews, M. D., E. Eid, J. Kelly, D., Bailey, J. K. S.,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of developing military leader.

www.kci.go.kr

Military Psychology, 18, 57-68.

Park, N., Peterson, C., Seligman, M. E. P. (2004). Strength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Park, N., Peterson, C., Seligman, M. E. P. (2006). Character strengths in fifty-four nations and fifty US stat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3),* 118-129.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eterson, C., Ruch, W., Beermann, U., Park, N., Seligman, M. E. (2007). Strengths of character orientation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49-15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eligman, M. E. P. (1990).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최호영 역. ≪학습된 낙관주의≫. 서울: 21세기 북스, 2008).

Seligman, M. E. P.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김인자 역.≪긍정심리학≫. 서울: 물푸레, 2006).

Shimai, S., Otake, K., Park, N., Peterson, C., Seligman, M. E. (2006). Convergence of character strengths in American and Japanese young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3),* 311-322.

SPSS Inc. (2003). *SPSS 12.0 Brief Guide.* New Jersey: Prentice Hall.

원 고 접 수 일 : 2009. 07. 19
수정원고접수일 : 2009. 09. 12
게 재 결 정 일 : 2010. 02. 09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Vol. 22, No. 1, 233-248

Character Strength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erceived Happiness and Life Adjustment of Cadets under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Kwang Un Kim **You-Kyung Yoon** **Seok-Man Kwon** **Seung-Soo Ha**

Korea Air Force Academ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looked at 24 character strengths of cadets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 of their character strengths with perceived happiness and life adjustment under the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Two hundreds and nine cade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ir responses to scal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2,030 university students. Results are as follows. Cadets scored relatively high in love, gratitude, kindness, optimism, and humor and they scored lower in self-control, prudence, forgiveness, love of learning, and spirituality. Additionally, cadets showed higher in citizenship, leadership, and bravery than college students. Optimism and lov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ived happiness and with the three sub-factors of life adjustment. We discussed the results under the views of character strengths in general as well as cadet life in particular.

Key words : character strengths, happiness, life adjustment, cadets, positive psychology

www.kci.go.kr